

지난 7년간의 난가가 1.73배 올랐지만...

양계의 양계수익을 결정하는 두가지의 큰요소는 난가와 산란사료 가격이다.

1978년도의 365일 평균 대란 가격이 27.5원이었으나, 1984년도의 평균대란가는 47.6원으로 1.73배가 되어, 난가만보아서는 양계수익이 상당히 좋아진듯이 보인다. 그러나 산란사료가격은 난가상승보다 더욱 큰 폭으로 올라 지난 7년동안에 무려 2.46배가 되어, 양계의 수익성은 오히려 크게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난가나 사료가격 어느 한쪽만으로는 수익지표가 될 수 없고, 사료가격과 난가를 연계해서 따져보는 난사비(대란 10개를 팔아 살수있는 사료량 kg)의 변화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대란 10개를 팔아 살수 있는 산란 사료량(난사비)의 수치가 커질수록 양계수익은 커진다.

지난 7년간의 대란가격 변화

표 1에는 1978년부터 1985년 전반기까지 서울근교 중규모양계장의 대란 10개당 농장도 가격이 월별로 나타나 있고 말미에 년평균 대란가격이 계산되어 있다.

난사비 (卵飼比)



김영환

신흥농장 대표
본지 편집위원

표 1. 대란 10개당 농장도가격의 변화(1978~1985년)

		대란10개가격(원)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	234	258	241	333	397	489	451	491
2	257	225	310	362	344	551	472	554
3	269	271	340	370	395	487	538	483
4	300	313	357	350	395	505	490	472
5	296	278	325	417	428	446	440	410
6	248	237	269	436	398	382	413	397
7	237	248	290	329	404	451	438	386
8	279	238	333	366	438	375	415	407
9	358	302	359	439	545	460	565	
10	310	268	335	413	461	413	527	
11	262	192	330	351	357	463	464	
12	260	244	344	370	428	470	499	
년평균	275.8	256.2	319.4	378	416	457	476	

1978년은 경제적으로 확장기에 들어서 인플레이와 소비증가로 난가가 이례적으로 좋은 해였고, 1979년 여름을 지나면서 제2차 원유가격 쇼크로 불황, 긴축이 시작되어 확장되었던 대란 생산기반과 소비위축이 작용하여, 1979년의 난가가 전년도보다 낮아지는 이변을 보이 고 있다.

1980년, 1981년에 들어 계란의 시장가격이 높은 생산원가에 적응하는 기간을 거쳐 난가는 다시 꾸준히 증가하여, 1984년에는 대란 10개가격이 평균 476원까지 상승하였다. 이 가격은 1978년의 대란가격 275원에 비하면 1.73배 오른 가격으로, 연간 2원90전씩 오른셈이 된다.

지난 7년간의 산란사료가격의 변화

산란사료의 kg당 가격은 지역, 경제조건, 지대인가 무포장 사료인가, 공장직거래 여부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여기에 조사된 사료 가격은 상기 여러조건에는 일관성이 없으며, 대개 고시가격과 사료가격 자유화 시기에는 할인된 농장 도착현금가격을 조사된대로 기준으로 삼았다.

○ 산란사료 kg당 가격의 변화

1978년 1월 87.35 원
 1979년 4월 1일 104.24 원
 1980년 1월 22일 134.51 원
 1980년 8월 1일 142.12 원
 1980년 8월 4일 145.20 원

1980년 9월 1일 151.80 원
 1981년 4월 25일 178.20 원
 1981년 6월 3일 184.36 원
 1982년 1월 7일 183.04 원
 1982년 1월 25일 175.13 원
 1982년 3월 12일 173.14 원
 1983년 4월 1일 185.9 원
 1983년 7월 1일 198.0 원
 1983년 11월 1일 고시 222.2원(215원 적용)
 1985년 3월 고시 222.2원(195원 적용)
 1985년 8월 고시 222.2원(187원 적용)
 사료가격은 2차 에너지 쇼크가 시작되는 1979년부터 크게 상승하였고, 또한 1981년에는 미국의 옥수수 작부면적 제한 정책에 의한 옥수수가격의 등귀로 사료가격이 크게 올랐다.

대란 10개로 살수있는 사료량(난사비)의 변화

월별대란 10개 가격을 당시의 산란사료 kg당 가격으로 나누어 표2 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2를 곡선으로 표시하면 그림 1 과 같다.

그림 1을 보면 1973년 이후 가장 심했던 양계 불황은 3번이 있었다. 즉 1973년 가을에 일어난 제1차 에너지 쇼크와 미국곡물금수조치로 1974년 1월에 난사비가 1.8을 기록하였고, 다음은 1979년 11월에 1.84 그리고 1984년 6월 1.92 (사료의상구입시 1.86)이었다.

한편 난사비가 특별히 높았던 1978년 9월은 4.1을 기록하였고, 1982년 9월에 3.18, 1983



년 2월에는 3.18로서 양계를 잠시나마 행복하게 했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1984년에 들어와서는 년평균 난사비가 2.21로 감소해서 우리나라 양계 역사 이래로 최하위 수익을 나타내었고 1985년에도 난사비는 매우 낮

아 마진폭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계경영의 손익분기점 - 난사비 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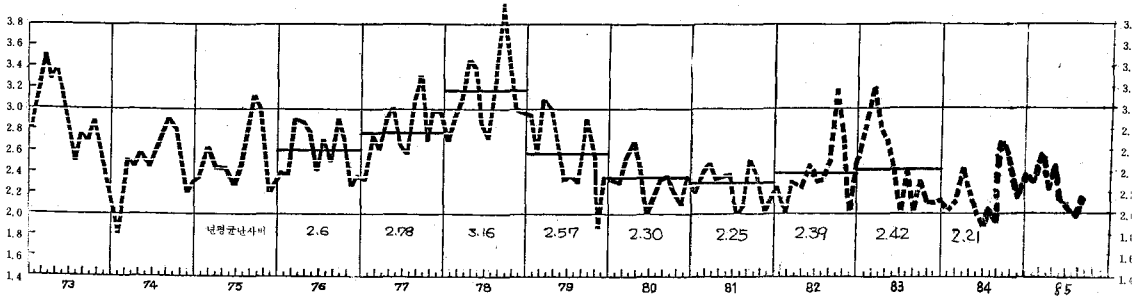
난사비가 2.35이면 양계수익은 이익도 결손도 아닌 본전이

표 2. 난사비의 변화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	2.68	2.95	2.31	2.19	2.17	2.82	2.09	2.28
2	2.94	2.58	2.30	2.38	1.96	3.18	2.19	2.58
3	3.08	3.10	2.53	2.44	2.27	2.81	2.50	2.24
4	3.43	3.00	2.65	2.31	2.27	2.71	2.28	2.42
5	3.39	2.67	2.42	2.34	2.47	2.40	2.05	2.10
6	2.84	2.27	2.00	2.36	2.30	2.05	1.92	2.11
7	2.71	2.38	2.16	1.89	2.33	2.42	2.04	1.98
8	3.19	2.28	2.29	2.09	2.53	2.02	1.93	2.17
9	4.1	2.90	2.36	2.49	3.18	2.31	2.63	
10	3.55	2.57	2.21	2.36	2.66	2.08	2.45	
11	3.0	1.84	2.17	2.02	2.06	2.08	2.16	
12	2.98	2.34	2.27	2.12	2.47	2.11	2.32	
평균	3.16	2.57	2.30	2.25	2.39	2.42	2.21	

* 참고 : 76년 평균난사비 2.60, 77년 2.78

그림 1. 난사비 변화 곡선



라고 말할수 있다. 즉 2.35 가
손익분기점이라고 할수있다.

2.35라고 하는 수치는 다음
과 같은 가정하에 계산해 낼수
있다.

가정 1: 계란 1개 원가중
산란사료비의 구성비는 73%이
다.

즉 사료비 = 생산원가 × $\frac{73}{100}$
으로서 계란 개당 생산원가
= 사료비 × $\frac{100}{73}$ = 사료비 × 1.37
의 계산이 된다.

가정 2: 산란계의 1일 평균
산란율은 70%이다.

가정 3: 1일간의 사료섭취
량은 0.12kg이다.

이상의 가정 1, 2, 3을 종합할
때: 계란 1개 생산에 드는 생산
원가 = 계란 1개 생산에 드는 사
료비 (0.12kg × 1.43 1일 평균
산란율 0.7개) × 1.37 = 0.235이

며, 계란 10개 생산에 드는 생
산원가는 2.35의 계산이 나온
다.

(참고: 가정 1은 양계산업
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생산성
제고방안, 연구대표: 오봉국박
사, 48페이지중 “계란한줄당생
산비” 참조)

위의 계산에 의하면 산란사료
kg당 가격의 2.35배가 대란 10
개의 생산원가라 말할수 있다.

「양계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생산성 제고방안」 책자의
계란 10개당 생산원가 398원중
에서

- ① 건물기구상각비 7.43원
- ② 자기 자본이자 17.11원
- ③ 자가토지용역비 1.18원 등
비현금부문을 따지지 않을 경우
의 손익분기점 난사비는 2.25
kg으로 계산된다.

즉 난사비 2.35 이하 2.25가

지는 경리상의 적자는 발생하
나, 실제로 돈을 차입하여 운
영할 정도는 아니며, 난사비가
2.25 이하로 내려가면 실제로
돈을 차입하여야 하는 적자운
영상태가 된다.

1984년은 우리나라 양계역사
상 난사비가 처음으로 2.25 이
하로 내려간 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난가기준을 대란
(평균 57그램)가격 기준으로 하
였으나, 실제로 닭이 일평생생
산한 계란의 평균 난중은 계종
에 따라 57그램보다 높은 58~
60그램 사이인 것을 보정하여
야 할것이며, 사료의 질과 경
영방식에 따라, 가정 1, 2, 3은
크게 달라지므로 앞으로 양계
여건 변화에 따른 손익분기점
난사비는 좀더 깊은 연구를 필
요로 한다. ▣